



## 영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삼층 구조 분석\*

백다윤 (부산대학교) 장경철 (부산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ober 30, 2022

Revised: December 10, 2022

Accepted: December 30, 2022

Dayoon Baek (1st author)  
Graduate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Tel: 051-510-1510  
E-mail: 100dayoon@naver.com

Kyungchul Chang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Tel: 051-510-1510  
E-mail: seodaebu@pusan.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PNU-RENovation (2021- 2022).

### ABSTRACT

**Baek, Dayoon and Kyungchul Chang. 2022. A three-layered structural analysis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561-1586.**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derivational analysis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English. We argue that the three arguments in the construction are realized by three different heads through the (re-)merge operation, yielding a three-layered VP structure. This is evidenced by data of the distribution of phrasal verbs that are considered to have a complex verb configuration. With respect to the aspectual properties of the construction, a functional head often called an Inner Aspect (IA) by Travis (2010) is introduced between the so-called vP shell and its root VP. As the indirect object is an additional argument, it remerges in the specifier of IA, which is the way station for the derivation in which the verb moves from V to v. We also suggest that the verb movement beneath the vP is not a single operation, but a combination of two types of adjunction. One is syntactic, and the other is post-syntactic.

### KEYWORDS

double object construction, three-layered VP, (re-)merge, indirect object, inner aspect, verb movement, (post-)syntactic

## 1. 서론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double object construction)은 타동사가 주어 외에 간접목적어(indirect object)와 직접목적어(direct object)를 취하는 구문이다. 주어는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에 해당하고, 두 목적어는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에 해당한다. 예문(1a)의 이중목적어 구문을 살펴보자.<sup>1</sup> (1a)는 동사 뒤에 간접목적어 *me*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직접목적어 *a present*가 온다. 두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1b)와 같은 여격 구문(dative construction)이 된다. (1b)는 동사 뒤에 직접목적어 *a present*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전치사를 동반한 간접목적어 *me*가 온다.

- (1) a. Elena gave me a present. (이중목적어 구문)  
 b. Elena gave a present to me. (여격 구문)

위의 (1)에서 두 내부논항의 표면적 위치는 다르지만, 의미역(theta role)은 동일하다. 간접목적어는 목표역(goal)을 부여받고, 직접목적어는 대상역(theme)을 부여받는다.<sup>2</sup> 이러한 이유로 두 구문은 오랫동안 함께 논의되어 오고 있고, 크게 두 가지 분석으로 나뉜다. 하나는 두 구문이 통사적 도출 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입장이고(Baker 1988, 1997, den Dikken 1995, Larson 1988, 1990, Macdonald 2015, Ormazabal and Romero 2010, 2012), 다른 하나는 통사적 도출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Hale and Keyser 2002, Harley 1995, 2002, Marantz 1993, Oehrle 1976, Pyllkänen 2008).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지지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sup>3</sup>

이중목적어 구문의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동사구의 층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Larson(1988) 이후로는 세 개의 논항에 대한 핵의 수가 적게는 두 개에서(Chomsky 1995, Harley 2002, Harley and Jung 2015, Harley and Miyagawa 2017, Kratzer 1996, Larson 1988, Pesetsky 1995, Radford 2009) 많게는 네 개까지(Lohndal 2011, 신희택 2016) 설정하기도 한다. 기존 동사구의 핵을 쪼개어 하위 V와 상위 *v*를 기본 핵으로 설정하든가,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여러 층위를 추가해왔다. 핵의 수가 세 개(Beck and Johnson 2004, Bruening 2010a-b, MacDonald 2015, Marantz 1993, Pyllkänen 2008, Ramchand 2008, Ura 2000)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상구(Aspect Phrase, AspP), 적용구(Applicative Phrase, ApplP), 태구(Voice Phrase, VoiceP) 등과 같은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y)를 도입해왔다. 두 내부논항이 지정어(specifier)와 보충어(complement)로 실현될 수 있어서인지, 이분지 원리(binary principle)와 함께 이중 핵을 설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sup>4</sup>

1 본 연구에서 출처가 없는 예문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에게 검증받았음을 미리 밝힌다.

2 본 연구에서는 논항으로 실현되는 목표역과 전치사구로 실현되는 목표역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목표역으로 표기하고 후자를 목표역 PP로 표기한다.

3 본 연구는 이중목적어 구문에 중점을 두지만, 필요에 따라 여격 구문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두 구문을 함께 논의한다. 여기서 차이는 두 구문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이지 대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4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의 목적으로 동사구에 설정된 핵의 개수에 따라 이중 핵, 삼중 핵, 사중 핵이라는

하지만 이중 핵을 설정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이중 핵을 설정한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근거이다. 예를 들면, 하위 VP의 핵 V는 두 내부논항의 병합(merger)에 관여하지만, 상위 vP의 핵 v는 하나의 외부논항 병합에만 관여한다. 이 때문에 논항의 병합과정에서 V는 v에 비해 비대칭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조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핵이 도입하는 논항 수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핵을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마 복잡한 개념과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 기준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V가 두 내부논항과 병합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합과정을 균등 순환방식으로 보고, 기존의 하위 핵 V를 더 쪼개어 삼중 핵을 설정하고자 한다. 삼중 핵 분석에 대한 근거로는 영어 구동사(phrasal verb)의 분포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할 수 없는 핵 이동(head movement)의 문제는 새로운 해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삼중 핵 구조는 목표역이 Appl와 같은 기능 핵(functional head)과 기저 병합하고, 사중 핵 구조는 목표역이 두 개의 기능 핵과 병합한다. 본 연구의 삼중 핵 구조는 기능 핵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해 보이지만, 목표역이 V와 기저 병합한 후에 기능 핵 IA와 재병합하고, 복합 운용(multiple operation)에 의한 핵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수의 핵을 설정하는 Lohndal(2011), 신흥택(2016) 등의 분석을 살펴보고, 삼중 핵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수반되는 추가투사로는 내부상구(Inner Aspect Phrase, IAP)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Macdonald(2008, 2015), Travis(2010) 등의 분석을 검토한다.<sup>5</sup> 3장에서는 삼중 핵 설정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구동사의 분포를 제시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에서의 주된 쟁점들을 통해 구조를 검증하며, 병합과정에서 제기되는 핵 이동에 대해 제안한다. 4장은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 2. 선행 연구

### 2.1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징

통사적 측면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징은 추가 논항이고, 이 논항이 목표역으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목표역은 잉여적인 요소로 보이는데, 예문(2)에서 (1)의 이중목적어 구문을 다시 들여다보자.

- (2) a. Elena gave me a present. (= (1a))  
 b. \*Elena gave me.  
 c. ?Elena gave a present.

표현을 사용한다.

<sup>5</sup> 본 연구는 내부상에 초점을 두므로, 외부상과의 구분을 위해 IAP 표찰을 사용한다.

목표역은 (2b)와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2c)와 같이 질문에 답하거나 목표역에 관한 정보를 아는 담화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 전자는 목표역이 대상역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후자는 목표역이 생략 가능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사가 목표역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은 목표역이 대상역에 비해 동사와 덜 밀접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 점은 예문(3)에서 더 명확히 보여준다.

- (3) a. Ms. Kim brought (me) a present.  
b. Ms. Kim made (me) a cake.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사용되는 동사 중 일부는 (3)과 같이 타동사 구문에서도 사용된다. (3)은 동사가 대상역을 반드시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동사가 대상역과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사와 대상역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구조적 측면에서 동사는 자신과 더 밀접한 대상역과 먼저 병합해야 할 것이다. 병합은 이분지로 이루어지므로, 동사가 두 내부논항을 동시에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사가 대상역과 먼저 병합하고 순차적으로 목표역과 병합한다면, 목표역은 대상역을 비대칭적(asymmetric)으로 성분통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립된 두 내부논항의 비대칭적 관계는 예문(4)의 조응소 결속(anaphor binding) 현상에서 확인된다. (4a)에서 *Mason*은 조응소 *himself*를 결속하지만, (4b)에서 조응소 *himself*는 *Mason*을 결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목표역만 대상역을 결속한다는 사실은 두 내부논항의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따라 목표역-대상역의 선형적 어순(linear order)도 예측 가능해 보인다.

- (4) a. She showed Mason himself in the mirror.  
b. \*She showed himself Mason in the mirror.

(Barss and Lasnik 1986: 348)

그러나 영어의 일부 변이형(variety)에서는 두 내부논항이 예상 밖의 어순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5a)는 대부분의 영어 화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중목적어 구문이고, 여기서 목표역 *you*는 대상역 *it*를 선행한다. 이와 달리 (5b)는 변이형의 일종으로, 영국 북부지역에서 사용되는 구문이다. 이 구문에서 대상역 *it*는 목표역 *you*를 선행하므로, 영국 북부지역의 화자가 아니라면 비문으로 인지할 것이다.

- (5) a. I'll give you it back.  
b. I'll give it you back.

(Edelstein 2020: 44)

Edelstein(2020)에 따르면, (5)의 어순 차이는 논항의 격과 정보구조와 관련된 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이동 현상의 결과이다.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먼저 충족되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눈여겨볼 부분으로 (5)는 병합이 어순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이를 전체로 통사구조를 제안하고 논의할 것이다. 핵과 보충어의 상대적 위치가 언어별 어순 매개변인이라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지만, 단어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처럼 자의적이

기 때문이다.

의미적 측면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징은 목표역의 결과 상태에 있다. 목표역은 사건에 영향을 주고, 사건의 결과로 목표역의 상태가 변한다(Travis 2010). 여기서 변화는 목표역이 대상역을 소유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Bruening 2010a–b, Green 1973, Goldberg 1995, Harley 2002, Oehrle 1976, Pinker 1989, 2007). 아래 예문(6)을 통해 살펴보자. (6a)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목표역의 변화를 함의한다. 사건 초반에는 목표역 *Paul*이 대상역 *French*에 서툰지만, 사건 후반에는 *teaching*의 결과로 *French*에 능숙해진 상태이다. 이와 달리 (6b)의 여격 구문은 목표역의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다. *teaching*이 종결되었지만, *Paul*이 여전히 *French*에 서툰 상태이기 때문이다.

(6) a. Mary taught Paul French (\*but the idiot still doesn't speak it properly).

b. Mary taught French to Paul (but the idiot still doesn't speak it properly).

(Travis 2010: 45)

목표역의 의미적 차이는 통사적 형태에서 비롯된다고 논의되어왔다. (6a)에서 목표역은 목적어 논항으로 실현되고, 두 내부논항의 소유관계가 성립한다. (6b)에서 목표역은 전치사구로 실현되고, 두 내부논항의 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Goldberg 1995, Harley 2002, Krifka 2004, Pinker 1989). 이러한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역 논항이 실현되는 방식이 이중목적어 구문의 구조적 특징이 된다고 가정한다.

## 2.2 동사구 핵 설정

동사와 두 내부논항의 결합 방식과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핵을 설정하는 분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다. 그중에서 이중 핵 설정은 핵과 논항이 비대칭적으로 실현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방식이다. 삼분지(ternary)를 허용하는 것이 사분지(quaternary) 이상의 생성을 막지 못하듯이, 셋 이상의 핵을 설정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여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중목적어 구문에 관한 분석이 이분지 구조를 준수하게 된 이유는 두 내부논항의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달리, 이중 핵 설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 만약 이중 핵이 설정되어야 한다면 핵과 논항이 비대칭적으로 실현되는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더라도 비대칭적 실현이 제공하는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논항이 서로 다른 핵과 함께 실현되어야 해결될 것이다.

두 개의 내부논항을 담당하는 하위 핵 V의 부담을 줄이려면 하나의 논항을 담당해 줄 추가 핵이 필요하다. 추가 핵을 설정하기 위해 V를 분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이 방식은 각각의 내부논항을 분리된 핵과 병합하게 함으로써, 핵이 논항 도입에 있어서 균등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균등성은 하나의 핵이 하나의 지정어와 하나의 보충어를 가지는 통사구조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분지 구조가 Larson(1988)의 단일 보충어 가설(Single Complement Hypothesis)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초기 최소주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homsky(1995), Bobaljik(1995), Ura(1996)의 분석에서 두 내부논항은 기저 위치와 관계없이 격 자질 점검을 위해 서로 다른 위치로 비가시적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논항 분산은 균등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사가 취

하는 보충어 개수에 따라 여러 개의 핵이 설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중목적어 구문의 구조적 특징이 목표역의 실현 방식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핵의 분리를 통해 설정된 추가 핵이 목표역과 병합한다고 본다. 먼저, 다수의 핵을 설정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예문(7a)와 같이 목표역은 *wh*-이동이 불가능하지만, (7b)와 같이 대상역은 *wh*-이동이 가능하다.

- (7) a. \*Who did she buy these shoes?  
b. What did she buy him?

(Huddleston, Pullum and Reynold 2021: 72)

목표역의 *wh*-이동에 대해 Lohndal(2011)은 VP와 vP 외에 LAppIP(Low Applicative Phrase)와 AspP를 도입한 사중 핵 구조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8)과 같이 v는 AspP를 보충어로 취하고(Backer 1997), Asp와 V는 각각 VP와 LAppIP를 보충어로 취한다.

- (8) a. [<sub>vP</sub> SU [v[uT] [<sub>AspP</sub> \_\_ [<sub>Asp</sub>[+T] [<sub>VP</sub> [V [<sub>LAppIP</sub> IO[-T] [<sub>LAppI</sub> DO[-T]]]]]]]]]]]  
b. [<sub>vP</sub> SU [v[+T] [<sub>AspP</sub> IO[+T] [<sub>Asp</sub>[+T] [<sub>VP</sub> [V [<sub>LAppIP</sub>  $\text{\textcircled{H}}$  [<sub>LAppI</sub> DO[+T]]]]]]]]]]]  
(Lohndal 2011: 186–187)

(8)에서 v와 Asp는 [+T]자질을 내포하고, 목표역과 대상역은 [-T]자질을 내포한다. 여기서 [+T]자질은 비해석성(uninterpretable) [uT]자질이고, [-T]자질은 해석성(interpretable) [iT]자질이다. 비해석성 자질은 자질 점검(feature checking)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질 점검은 비해석성 자질이 관련 자질과 점검 관계(checking relation)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Chomsky 1995). 비해석성 자질을 내포하는 요소는 점검자이고, 해석성 자질을 내포하는 요소는 피점검자이다. 관련된 두 자질이 점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피점검자가 점검자와 가까운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피점검자의 착지점을 점검자의 점검영역(checking domain)이라고 한다.

Boeckx(2008)와 Lohndal(2011)에 의하면, 어떤 요소가 점검영역에 들어가면 추가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점검영역으로 이동된 요소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들의 분석에서 v는 목표역과 여격(dative case)을 점검하고 Asp는 대상역과 대격(accusative case)을 점검한다. 목표역은 점검을 위해 v의 지정어로 이동해야 하지만, 상대적 최소성(relativized minimality)에 의해 Asp의 지정어로 이동하게 된다.<sup>6</sup> 이때 Asp의 지정어는 점검영역이 되고, 이 영역에서 목표역은 동결된다. 따라서 목표역은 *wh*-이동이 불가능하다.

Lohndal(2001)의 분석에 따르면, 이중목적어 구문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한 가지 해석은 두 내부논항의 소유관계를 보여주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사건과 개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전자는 두 논항이 LAppI과 병합하는 기저 구조를 통해 나타나고, 후자는 대상역과 목표역이 각각 LAppIP 내부와 외부에서 실현되는 도출구조를 통해 나타난다. 이 분석은 목표역이 LAppI의 지정어로 기저 발생하여

<sup>6</sup> Rizzi(1990)의 상대적 최소성은 지배를 통제하는 조건이다. 성분 X는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최소 성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만약 선행사와 동일한 요소가 선행사와 흔적 사이를 가로막으면 선행사가 자신의 흔적을 지배할 수 없다. 선행사의 지배를 가로막는 요소가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대적 최소성이라 한다.

As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목표역이 추가 핵과 병합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두 내부논항이 의미가 없는 LAppl와 기저 병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상역과 격을 점검하는 Asp가 목표역과 병합하면 핵의 기능이 상충하므로 문제가 있다.

이와 달리 신흥택(2016)의 분석에서는 HApplP(High Applicative Phrase)와 AspP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9)와 같이 Asp는 HApplP를 보충어로 취하고, HAppl는 VP를 보충어로 취한다. 이 분석에서는 Asp가 대상역의 자질을 점검하고 Appl가 목표역의 의미역 자질을 점검하므로, 핵의 기능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Appl가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역을 가진 논항을 도입한다는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 (9) a.  $[_{VP} [v[+T] ] [_{AspP} \_ [Asp[+T] ] [_{HApplP} IO[-T] ] [HAppl [VP [V [DO[-T]]]]]]]$   
 b.  $[_{VP} [v[+T] ] [_{AspP} IO[+T] ] [Asp[+T] ] [_{HApplP} \text{I}\Theta [HAppl [VP [V [DO[+T]]]]]]]$   
 (신흥택 2016: 72)

사중 핵 구조는 논항들이 서로 다른 핵에 의해 도입된다는 점에서 균등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추가 논항을 도입하기 위해 두 개의 핵 Appl와 Asp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도출 과정이 비경제적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핵 구조에서 나타나는 핵과 논항의 비대칭성과 사중 핵 구조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도출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추가 핵만 설정하기로 한다. 핵 설정을 위한 방식으로는 두 내부논항을 담당하는 V를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삼중 핵 설정은 구조적 측면에서 핵이 논항을 균등하게 도입하여 특정 핵에 부과되는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고, 개념적 측면에서 핵과 논항 도입에 관한 복잡한 기준과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분리된 핵들은 두 논항과 균등순환적으로 병합하는데, 추가 핵과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 2.3 내부상

두 내부논항을 담당하는 V를 분리하면, 대상역과 목표역은 각각 분리된 핵으로 분산될 것이다. 분리된 핵 중에서, 하나는 V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추가 핵이 될 것이다. 동사와 대상역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V는 대상역과 먼저 병합해야 하므로, 추가 핵은 예상대로 목표역과 병합하게 된다. 추가 핵 설정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ApplP와 AspP를 도입한다. 이들 중에서 적합한 투사 하나만 도입하여 이중목적어 구문이 도출된다면, 좀 더 경제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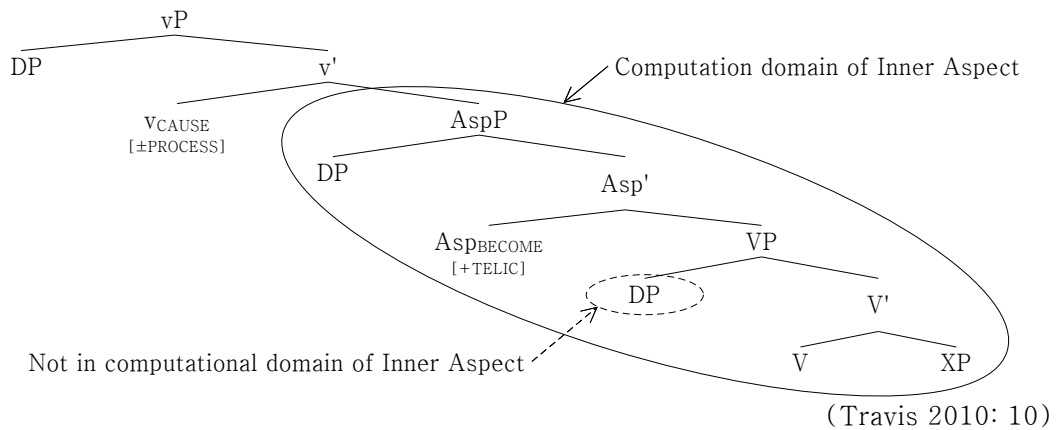
ApplP는 반투어의 추가목적어 구문에서 도입되는 투사이고, 이 구문에서는 추가 논항이 *-ir-*과 같은 접어(clitic)로 나타난다. 하지만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는 이러한 어형적 표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pplP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Asp와 같이 상(aspect)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목표역은 사건의 결과로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건의 결과는 사건의 종결성을 내포하므로, 목표역이 사건의 상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부상(inner aspect: IA)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상(outer aspect, OS)이다.<sup>7</sup> Travis(2010)는 내부상에 대해 사건의 종결성을 결정하는 상으로 정의하고, 사건

<sup>7</sup> Smith(1991)는 상을 상황상(situation aspect)과 관점상(viewpoint aspect)으로 구분한다. Travis (2010)는

과 관련된 핵 Asp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아래 수형도(10)을 통해 살펴보자. (10)에서 Asp는 종결성 연산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BE/BECOME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v는 외부논항을 도입하는 어휘 영역이고, CAUSE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V는 대상역과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하는 XP를 도입하는데, XP에는 목표역 PP(goal preposition phrase)와 결과 형용사구(resultative adjective phrase)등이 있다. Vendler(1967)에 의하면 이중목적어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는 완수동사이고, v와 Asp는 각각 [+process]자질과 [+telic]자질을 내포한다.<sup>8</sup>

(10) Computation domain of Inner Aspect



(Travis 2010: 10)

Asp는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요소에 종결성 연산을 요구하므로, [+telic]자질은 Asp에서 연산된 자질이다. Asp는 오직 자신의 지정어와 보충어, 그리고 이 보충어가 포함하는 보충어에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종결성 연산에 관여하므로 내부상 요소라고 하고, 이들이 실현되는 곳을 내부상 영역이라고 한다. 위의 (10)에서 연산에 관여하는 영역은 Asp의 지정어, 핵 V, 보충어 XP이다. 외부논항은 AspP 외부에서 실현되므로 이 연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Asp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요소가 연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에서 XP는 종결성 연산에 관여하지만, 대상역은 종결성 연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Travis(2010)는 대상역의 기저 위치가 종결성 연산에서 비가시적이므로, 대상역이 상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Asp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Asp와 일치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분석은 상에 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상역이 다른 요소들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

전자에 대해 내부상이라 하고 후자에 대해 외부상이라 한다. 내부상은 형태적으로 무표적이고, 동작상(Aktionsart) 또는 Vendler(1967)의 상적 동사 유형(aspectual verb classes)을 나타낸다. 외부상은 사건의 유경계성(boundedness)과 연관이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 유표적이고, 형태적 상(morphological aspect) 또는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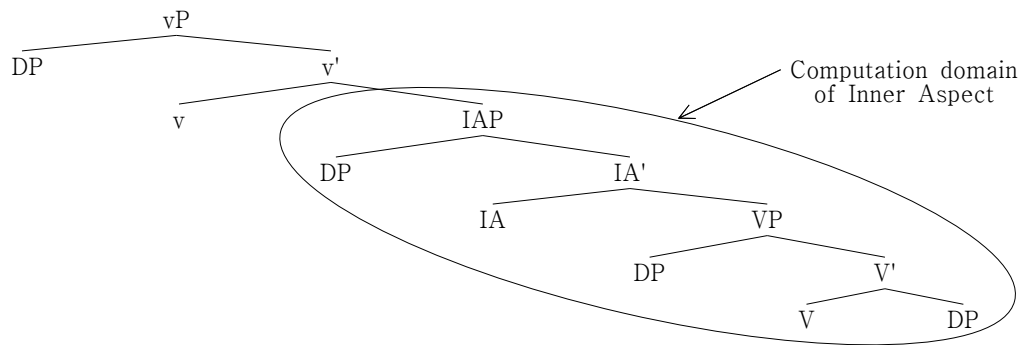
<sup>8</sup> Vendler(1967)는 [±process]자질과 [±definite]자질을 사용하여, 상적 동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유형에는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완수동사(accomplishment), 성취동사(achievement)가 있다. Travis(2010: 1)는 이 유형들을 통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v와 Asp에 내포된 자질을 사용한다. v에는 [±process]자질이 있고, Asp에는 [±telic]자질이 있다. v는 PROCESS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Asp는 DEFINITE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이에 따라 성취동사, 상태동사와 행위동사, 완수동사는 [±process]자질로 구분하고, 성취동사, 완수동사와 행위동사, 상태동사는 [±telic]자질로 구분한다.



확히 보여주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Travis(2010)의 내부상 영역에 대해 수정하고, 내부상 요소가 일관적으로 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특정 요소만 이동을 통해 상에 관여한다면, 이동하는 요소와 이동하지 않는 요소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요소가 이동을 통해 상에 관여한다면, 그 도출 과정이 아마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이 없는 간단한 방식으로 모든 요소가 기저 위치에 상에 관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형도 (11)과 같이 IAP를 중간 투사로 도입하고, IAP 전체를 내부상 영역으로 설정한다. (11)에서 IAP 내에 있는 모든 요소는 내부상 요소에 해당하고, 이들은 기저 위치에서 종결성에 관여하게 된다.

(11) Computation domain of Inner Aspect



이제, 내부상 요소들이 상에 관여하는지 확인하여 보자. (11)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내부상 요소는 동사와 두 내부논항이다. 내부논항은 동사가 묘사하는 사건의 상에 영향을 미친다(Verkuyl 1972: 50, Krifka 1989: 76). 예문(12)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대상역을 먼저 살펴보자.

- (12) a. Mary gave the child a book for two years.
- b. Mary gave the child books for two years.

(12)는 완수동사 *gave*가 사용된 구문이고, 두 문장은 뚜렷한 해석 차이가 있다. (12a)는 지속적인 행위를 보여주지 않지만, (12b)는 2년 동안의 지속적인 행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대상역에서 비롯된다. (12a)에서 단수 가산명사 *a book*는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므로,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사건의 종결점은 한 권의 책을 전달한 시점이다. 이처럼 종결 사건을 묘사하는 술어는 종결 술어(*telic predicate*)라고 한다. (12b)에서 무한정사 복수(*bare plural*) 명사 *books*는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종결 사건을 묘사하는 술어는 비종결 술어(*atelic predicate*)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Verkuyl(1972)는 논항이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면 [+q]자질을 내포하고,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지 않으면 [-q]자질을 내포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12)에서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하는 것은 대상역의 [+q]자질이다.

이번에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목표역을 살펴보자. 예문(13a)에서 목표역 *its visitor*는 [+q]자질을 내포하므로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한다.

- (13) a. The clinic gave its visitor the vaccination {in an hour/\*for an hour}.  
 b. Elena's Farm gives its livestock genetically modified feed {in an hour/for an hour}.

이와 달리 (13b)에서 목표역 *livestock*은 [-q]자질을 내포한다. 이 문장은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유형의 부사구 *for-phrase*, *in-phrase*와 모두 양립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sup>9</sup> 종결적 단일 사건이 지속성을 의미하는 부사구와 표현되면 반복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Jackendoff 1996, MacDonald 2008, Smith 1997). 위의 (12)–(13)을 보면 두 내부논항은 상에 다르게 관여하지만, (13)에서 목표역이 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내부논항의 상적 차이는 각 논항이 상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문(14)은 완수동사 *drank*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이다. (14a)에서 대상역 *a bottle of beer*는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하지만, (14b)에서 대상역 *beer*는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 (14) a. Jerome drank a bottle of beer last night {in ten minutes/\*for ten minutes }.  
 b. Jerome drank beer last night {for ten minutes/\*in ten minutes }.  
 (MacDonald 2008: 2)

예문(15)에서 대상역의 [ $\pm q$ ]자질은 종결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a)와 (15b)에서 대상역은 각각 [+q]자질과 [-q]자질을 내포하므로 상적 차이가 예상되지만, 두 문장은 모두 비종결 사건을 묘사한다. 그 이유는 *carried*가 행위동사이므로, 완수동사와 상적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15) a. John carried a goat {for ten minutes/\*in ten minutes }.  
 b. John carried livestock {for ten minutes/\*in ten minutes }.  
 MacDonald(2008: 5)

(15)에서 목표역 PP를 첨가하면 예문(16)이 된다. 이러한 성분의 첨가로 (15a)의 비종결 사건은 (16a)의 종결 사건이 된다. 목표역 PP가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함으로써, 동사의 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 (16) a. John carried a goat into the barn {in ten minutes/\*for ten minutes }.  
 b. John carried livestock into the barn {for ten minutes/\*in ten minutes }.  
 MacDonald(2008: 5)

위의 (14)–(16)은 대상역과 목표역 PP가 종결성에 관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MacDonald(2008)는 내부상 속성을 주장한다. 그는 대상역이 OTE mapping(Object-to-event mapping) 속성을 가지고, 목표역 PP가 사건구조(Event Structure) 속성을 가진다고 한다. 전자는 논항의

<sup>9</sup> 종결성은 동사가 시간과 관련된 두 유형의 부사구와 양립하는지에 따라 검증된다(Vendler 1967, Snyder 2001, Macdonald 2008). 관련 부사구에는 시간의 지속성과 길이를 의미하는 *for-phrase*와 *in-phrase*가 있다. 전자와 양립하면 사건이 종결성을 가지지 않고, 후자와 양립하면 사건이 종결성을 가진다.

[±q]자질이 동사의 상에 관여하는 속성이고, 후자는 목표역 PP가 사건구조의 상에 관여하는 속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역의 통사적 형태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는 (6)의 논의를 바탕으로, IOTE mapping(Indirect Object-to-event mapping)을 추가적인 내부상 속성으로 제안한다. 이 속성은 목표역 논항이 상에 관여하는 것이다. IOTE mapping 속성은 MacDonald(2008)가 제시한 두 속성과는 별개이므로, OTE mapping에 대해 DOTE mapping(Direct Object-to-event mapping)으로 새로 명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문(17)에서 (6)을 다시 살펴보자.

(17) a. Mary taught Paul French (\*but the idiot still doesn't speak it properly). (= (6a))

b. Mary taught French to Paul (but the idiot still doesn't speak it properly). (= (6b))

(Travis 2010: 45)

(17a)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목표역 논항은 종결성과 결과성에 관여하므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목표역의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17b)의 여격 구문에서 목표역 PP는 종결성에만 관여하므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목표역의 상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종결성은 두 구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결과성은 두 구문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특징이다. 따라서 IOTE mapping 속성은 목표역 논항이 종결성과 결과성에 모두 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결과성은 종결성을 전제하므로, 내부상 연산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유형의 내부상 속성은 내부상 요소의 상적 기여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적 차이가 구조에서 비롯된다면, 내부상을 연산하는 IA는 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상적 기여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12)–(17)에서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성 관점에서 목표역 PP는 대상역보다 상적 기여도가 크다. (12)–(13)에서 보여주듯이 대상역은 DOTE mapping 속성을 가지고 목표역 PP는 사건구조 속성을 가지므로, 종결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14)–(16)에서 보여주듯이 DOTE mapping 속성은 동사의 유형에 따라 제한적이므로, 대상역이 종결성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사건구조 속성은 동사의 상을 바꾸기 때문에, 목표역 PP는 동사의 유형과 상관없이 종결성에 관여한다. 둘째, 결과성 관점에서 목표역은 목표역 PP 보다 상적 기여도가 크다. (17)에서 보여주듯이 목표역은 IOTE mapping 속성을 가지고, 목표역 PP는 사건구조 속성을 가진다. 전자의 속성은 종결성과 결과성에 모두 관여하지만, 후자의 속성은 종결성에만 관여한다. 결과성은 종결성을 전제하므로, IOTE mapping 속성이 사건구조 속성에 비해 상적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내부상 연산은 종결성과 결과성을 반영하고, 내부상 요소의 상적 기여도는 목표역 > 목표역 PP > 대상역 순으로 볼 수 있다. 이 순서는 목표역이 IA와 실현된다는 가정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번 장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징이 어떻게 구조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논항을 담당하는 V의 구조적 부담을 덜기 위해, V를 분리하여 두 논항을 분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추가 핵 IA가 하나의 논항과 병합한다면, 핵과 논항은 대칭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동사와 두 내부논항의 관계를 전제로 가정한 내용은 목표역이 대상역과 함께 동사와 기저 병합하지만, 이동을 통해 IA와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목표역의 실현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상 영역을 확장하고, 내부상 속성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삼중 핵 구조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 3. 제안

#### 3.1 구동사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삼중 핵 구조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로 구동사의 분포를 제시한다.<sup>10</sup> 구동사는 어휘 동사(lexical verb)와 불변화사(particle)로 구성된다. 의미적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성분은 구동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기여한다. 예문(18)을 통해 살펴보자.

- (18) a. The manager worked away in the office.  
b. They worked out a new way of solving the problem.

(18)에서 구동사 *work away*, *work out*은 ‘일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유지하지만, 불변화사 *away*, *out*에 의해 동사의 상적 의미가 달라진다. (18a)는 지속을 의미하고, (18b)는 완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어휘 동사와 불변화사의 분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사적 측면에서 불변화사는 독립적으로 실현된다(Radford 1997). 예문(19)는 구동사 *handed back*이 사용된 이중목적어 구문이고, 여기서 불변화사 *back*은 표면적으로 세 위치에서 나타난다.

- (19) a. The crew handed back the passengers their passports  
b. The crew handed the passengers back their passports.  
c. The crew handed the passengers their passports back.

(Radford 1997: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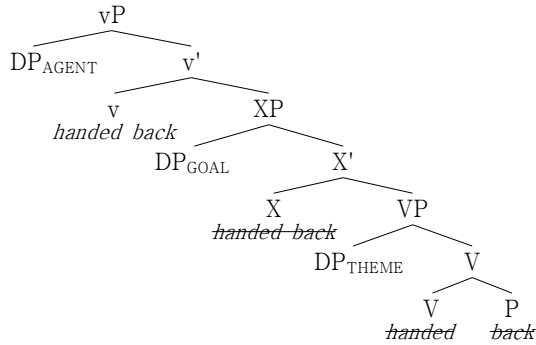
불변화사는 (19a)와 같이 동사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고, (19b)–(19c)와 같이 동사와 분리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전자는 동사와 불변화사가 하나의 통사 단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후자는 구동사가 두 개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Chang(2018)은 불변화사를 두 개의 핵으로 분석하고, 두 핵에서 작용하는 이동에 대해 외부 동사(outer verb) 이동과 내부 동사(inner verb) 이동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핵 사이의 이동을 확장하여 삼중 핵 구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불변화사가 독립적인 통사 단위로 실현된다는 것은 동사 핵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큰 단위의 동사 핵이 분리되어 작은 단위의 핵들로 실현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동사가 복합동사 구조를 가진다는 분석(Chang 2016, 2018, Chomsky 1957, McIntyre 2013, Radford 1997, Synder 2001)을 지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handed back*이 [<sub>V</sub> [<sub>V</sub> handed][<sub>P</sub> back]]의 구조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이 구조는 구동사가 어휘동사를 내포하는 구조로 큰 단위의 동사 핵이 작은 단위의 동사 핵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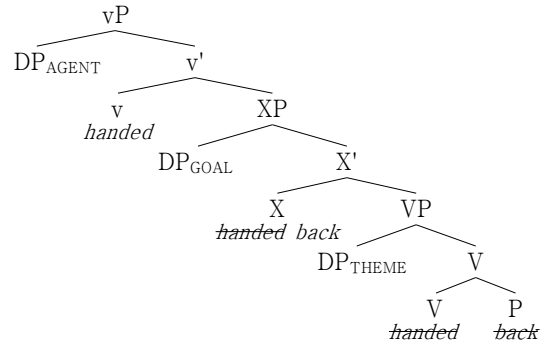
<sup>10</sup> 선행 연구에서 V의 어휘해체를 통해 제안한 추가 핵은 little v이고, 구동사는 이러한 해체의 증거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V에서 v로의 이동을 통해, 단일목적어 구문(monotransitive construction)에서 나타나는 구동사의 분포만을 다루고 있다. 물론 Radford(1997)의 분석에서도 이중목적어 구문에 나타나는 구동사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중 핵 구조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dford(1997)의 분석에서 제시하는 (19)의 예문을 삼중 핵 구조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위의 (19)에서 보여주는 구동사의 분포는 삼중 핵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구동사의 세 가지 도출 유형은 내부동사와 외부동사의 이동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즉, [<sub>v</sub> [<sub>v</sub> handed][<sub>p</sub> back]]의 구조에서 이동은 구동사와 어휘동사에서 작용한다. (19a)–(19c)는 각각 (20a)–(20c)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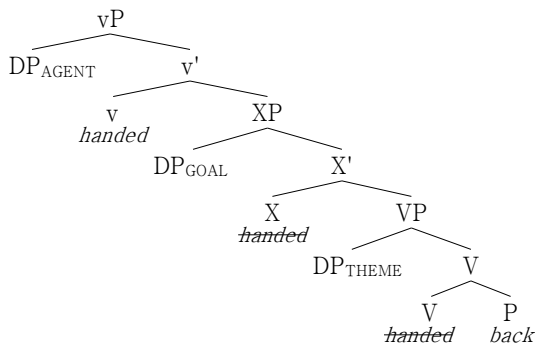
(20a) (from (19a))



(20b) (from (19b))



(20c) (from (19c))



(20a)에서는 구동사 전체에 이동이 작용하여, 어휘동사와 불변화사가 동반이동한다. (20b)에서 이동은 구동사 전체에 먼저 작용하지만, 중간착지점에서 어휘동사에만 작용한다. 그 결과 어휘동사와 불변화사는 중간착지점까지만 동반이동하고, 그 이후로는 어휘동사만 이동하여 불변화사가 두 내부논항 사이에 남게 된다. (20a)–(20b)에 대해 Radford(1997)는 불변화사가 선택적으로 인상한다고 언급한다. (20c)에서 이동은 어휘동사에만 작용하여, 불변화사가 대상역 뒤에 남는다.

하지만 모든 구동사의 분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문(21)은 구동사 *sent out*이 사용된 이중목적어 구문이고, 불변화사의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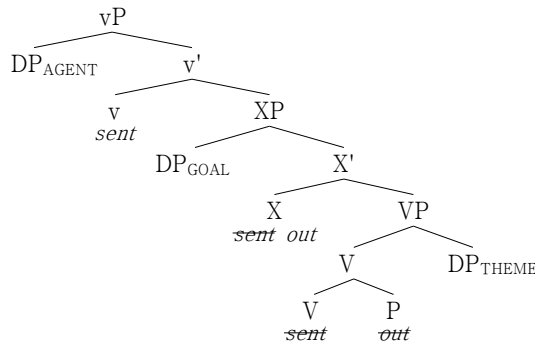
- (21) a. %The company sent out the blogger a cease-and-desist letter.
- b. The company sent the blogger out a cease-and-desist letter.
- c. \*The company sent the blogger a cease-and-desist letter out.

(Larsen 2014: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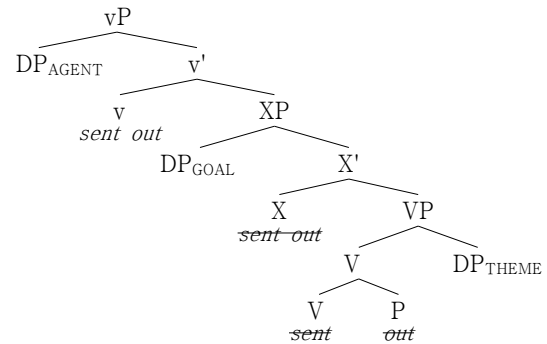
(21c)와 같이 불변화사 *out*는 두 내부논항 뒤에 남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이 어휘동사 [*v sent*]에 작용하지 않아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sent out*이 *handed back*과 다른 유형의 구동사이기 때문이다.

구동사는 불변화사의 분포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handed back*과 같이 불변화사가 대상역 뒤에 남을 수 있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sent out*과 같이 불변화사가 대상역 뒤에 남을 수 없는 유형이다. 전자는 후핵 언어처럼 대상역-동사의 어순으로 기저 병합하고, 후자는 선행 언어처럼 동사-대상역의 어순으로 기저 병합한다.<sup>11</sup> 후자의 유형은 (22)의 구조로부터 도출된다. 이 구조에서 불변화사가 대상역 뒤에 남을 수 없는 이유는 어휘동사가 이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동사-대상역의 어순으로 기저 병합하기 때문이다.

(22a) (from (21a))



(22b) (from (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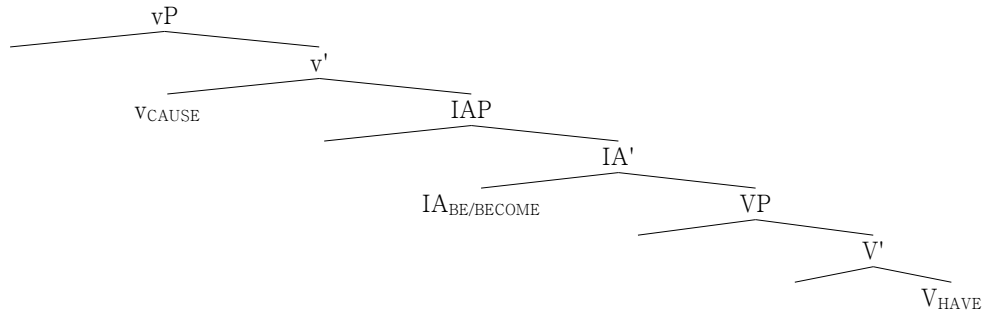


불변화사가 대상역 뒤에 남을 수 있는 구동사 유형과 남을 수 없는 구동사 유형의 분포 차이가 병합방식에 따라 다른 것은 Kayne(1994)의 어순대응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를 반증하는 예가 된다. 통사 요소들이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를 갖지만, 그들의 선형적 어순이 계층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어순이 병합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함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동사의 분포가 삼중 핵 설정을 입증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중목적어 구문의 구조를 아래 수형도 (23)과 같이 제안한다. 이 구조는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고, vP와 VP 사이에 IAP를 도입한다. IAP는 내부상 영역이고,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요소는 상에 관여하는 내부상 요소이다. 이 구문의 동사구는 사건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시간 경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상위 투사 vP는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고, 최상위 핵 v는 CAUSE를 의미한다(Hale and Keyser 1993). 추가투사 IAP는 시간 경과에 따라 목표역이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추가투사의 핵 IA는 상적 자질들의 연산이 발생하는 곳이고, 자질에 따라 BE/BECOME을 의미한다(Travis 2010). 최하위 투사 VP는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Beck and Johnson(2004)은 이중목적어 구문과 결과 구문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최하위 핵 V가 BECOME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sup>11</sup> 본 연구에서는 어휘 항목이 실현되는 어순으로 병합을 설명하지만, 어순이 어느 지점에서 고정되는지에 대해서 후속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23)



본 연구에서는 최하위 핵 V를 HAVE의 의미로 분석한다. 결과 구문이 이중목적어 구문과 유사한 점은 성분의 첨가로 목적어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이다(Mezhevich 2003, Travis 2010). 그러나 두 구문은 결과 상태가 암시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과 구문과 관련하여 예문 (24)를 살펴보자.

- (24) a. The workers hammered the nails (for an hour)(\*in an hour).
- b. The workers hammered the nails deep into the wall (\*for an hour)(in an hour).
- c. “Hammering the nails by the workers caused them to become deep into the wall”.

(24a)의 일반 타동사 구문은 비종결 사건을 보여준다. (24a)에 결과 형용사구를 첨가하면 (24b)의 결과 구문이 된다. 이 구문은 망치질하는 사건과 못이 벽에 깊게 박힌 상태를 묘사한다. 여기서 못이 벽에 박힌 상태는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한다. (24b)의 의미는 (24c)와 같은데, 이 구문에서 목표역의 상태 변화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 구문은 종결 사건을 묘사하지만, 소유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격 구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이중목적어 구문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예문(25a)의 일반 타동사 구문에 목표역을 첨가하면 (25b)의 이중목적어 구문이 된다.

- (25) a. The clinic gave the vaccination (\*for an hour)(in an hour).
- b. The clinic gave its visitor the vaccination (\*for an hour)(in an hour).
- c. “A giving by the clinic caused its visitor to come to have the vaccination”.

(25b)는 백신을 접종하는 사건과 백신이 환자에게 주입된 상태를 묘사한다. 여기서 백신이 주입된 상태는 사건의 종결점을 제공한다. (25b)의 의미는 (25c)와 같은데, 이 구문에서 목표역의 상태 변화는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이중목적어 구문은 종결성 관점에서 결과 구문, 여격 구문과 유사하지만, 결과성 관점에서 두 구문과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최하위 핵 V가 HAVE라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합이 의미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Travis(2010)의 입장에서, 목표역의 이동을 분석한다. 삼중 핵 구조에서 이러한 이동은 목표역이 대상역과 함께 동사와 기저 병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목표역과 관련하여 예문(26)–(27)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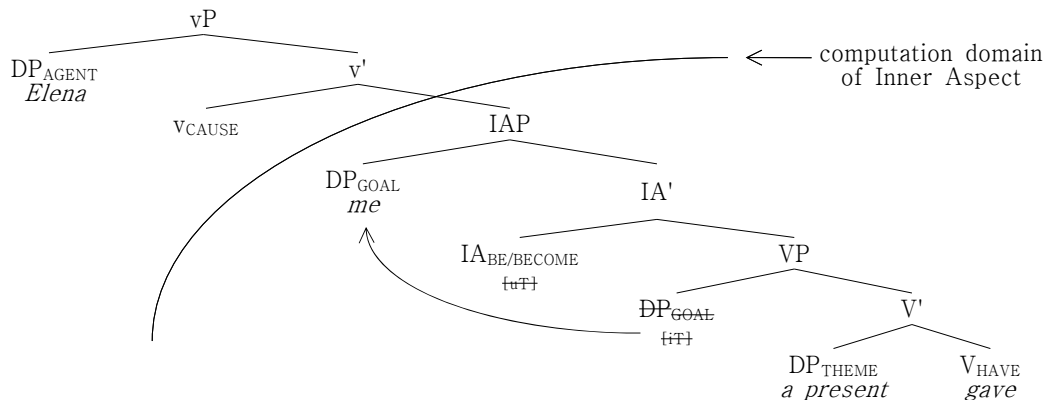
- (26) a. Elena gave me a present. (= (2a))
- b. \*Elena gave me. (= (2b))
- c. ?Elena gave a present. (= (2c))

- (27) a. His behavior gave Elena an idea.
- b. \*His behavior gave Elena.
- c. \*His behavior gave an idea.

(26)은 목표역이 맥락에 따라 잉여적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27)은 목표역이 대상역처럼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는 목표역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후자는 목표역이 동사와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가지 시사점은 목표역이 동사와 기저 병합하지만, 재병합을 통해 독립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목표역의 실현과 관련하여, 병합과정을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수형도 (28)과 같은 삼중 핵 구조를 제안한다. (28)에서 V는 대상역과 먼저 병합하여 V'를 형성하고, V'는 목표역과 병합하여 VP를 형성한다. 대상역이 V와 기저 병합하여 V의 보충어로 실현되는 것은 대상역과 V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목표역이 V와 기저 병합하여 V의 지정어로 실현되는 것은 목표역이 대상역만큼은 아니더라도 V와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VP는 IA와 병합하여 IAP를 형성하고, IAP는 v와 병합하여 vP를 형성한다.

(28)



본 연구에서는 Boeckx(2008)과 Lohndal(2011)의 점검영역과 상을 나타내는 핵에 내포된 비핵석성 [uT]자질을 전제로, 두 내부논항의 격에 대해 분석한다. V는 대상역과 대격을 점검하고, 상을 나타내는 핵 IA는 목표역과 여격을 점검한다. 후자의 경우는 V가 두 내부논항과 동시에 격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일단 V가 대상역과 격을 점검하면 목표역과 격을 점검할 수 없다. 위의 수형도 (28)에서 IA는 [uT]자질을 내포하고, 목표역은 [iT]자질을 내포한다. 따라서 목표역은 IA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IA로부터 여격을 점검받는다.

이와 같은 목표역의 재병합은 상적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내부상이 종결성과 결과성을 모두 반영하는 이유는 결과성이 종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위의 (28)에서 종결성은 IA에서 나타나고 결과성은 V에서 나타난다. 목표역이 V의 지정어에서 IA의 지정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V의 상적 정보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목표역이 대상역보다 상적 기여도가 더 큰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는 목표역이 IOTE mapping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구조적 측면에서 말해준다.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삼중 핵 구조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주된 쟁점들을 짚어보자. 먼저, 두 내부논항의 *wh*-이동에 대해 살펴보자. 예문(29a)와 같이 목표역은 *wh*-이동이 불가능하고, (29b)와 같이 대상역은 *wh*-이동이 가능하다.

(29) a. \*Who did she buy these shoes? (= (7a))

b. What did she buy him? (= (7b))

(Huddleston, Pullum and Reynold 2021: 72)

목표역의 *wh*-이동과 관련하여, 격 점검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자. V는 대상역과 병합하여 V'를 형성하고, V는 대상역과 대격을 점검한다. V'는 목표역과 병합하여 VP를 형성하고, VP는 IA와 병합하여 IA'를 형성한다. [uT]자질을 내포하는 IA는 점검자이고, [iT]자질을 내포하는 목표역은 피점검자이다. Chomsky(2001)에서는 전자를 탐색자(probe)라고 하고, 후자를 목표물(goal)이라고 한다. 탐색자 IA는 자신과 격을 점검할 목표물을 찾는데, 이때 V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목표역이 IA와 근접한 목표물이므로, 목표역은 IA와의 점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역은 IA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IA로부터 여격을 점검받는다. 목표역은 격 점검을 위해 점검영역으로 들어가 동결되므로, *wh*-이동이 불가능하다.<sup>12</sup>

대상역의 *wh*-이동과 관련하여, 계속 살펴보자. Lohndal(2011)의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문소가 실현되는 핵 C가 [uT]자질을 내포한다면, C는 탐색자가 되어 목표물을 찾을 것이다. 이때 IA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목표역은 C와 근접하지만, C의 목표물이 될 수 없다. 목표역은 격 점검을 위해 이미 점검영역으로 이동하여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점검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점검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요소이다(Lohndal 2011). 대상역은 기저 위치에서 V로부터

<sup>12</sup> 본 연구는 수동문을 별개의 구문으로 보고 분석에서 배제하지만, 내부논항의 구조격에 대해 밝힌다면 아래와 같다. (a)는 (1a)의 이중목적어 구문이고, (b)-(c)는 (a)의 수동문이다. (b)와 같이 목표역은 수동문의 주어로 이동하지만, (c)와 같이 대상역은 수동문의 주어로 이동하지 않는다.

a. Elena gave me a present. (= (1a))

b. I was given a present.

c. \*A present was given me.

(b)와 관련하여, 목표역은 IA로부터 여격을 점검받기 위해 V의 지정어에서 IA의 지정어로 이동한다. 이때 목표역의 착지점은 점검영역이 되므로, 목표역은 동결되어 추가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동화 과정에서 v의 격 자질이 소실되어(Lohndal 2011), 목표역이 주어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v의 격 자질이 소실되면 논항 영역 내에서 목표역을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EPP-자질을 내포하는 T가 탐색자가 되고, 목표역은 T의 지정어로 이동하여 T로부터 주격을 점검받게 된다. (c)와 관련하여, 대상역이 주격을 점검받기 위해 T의 지정어로 이동한다면, IAP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미 IA의 지정어에 목표역이 존재하여 대상역의 이동을 막으므로, 대상역은 수동문의 주어로 이동할 수 없다.

터 격을 점검받으므로, 아직 점검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상역은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wh*-이동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양화사 작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예문(30)을 살펴보자.<sup>13</sup> (30a)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목표역 양화사 *a*만 광범위 작용역(wide scope)을 가지므로, 단일 해석(unambiguous reading)만 가능하다. 이 구문은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사탕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30b)의 여격 구문은 대상역 양화사 *a*와 목표역 양화사 *every*가 모두 광범위 작용역을 가지므로, 중의적 해석(ambiguous reading)이 가능하다. 이 구문은 사탕의 수와 아이의 수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 (30) a. I gave a different child every candy bar. (\*every>a)  
 b. I gave a different candy bar to every child. (every>a)

(Bruening 2010a: 292)

구조적 측면에서 (30)을 다시 살펴보자. Bruening(2001)은 양화사 작용역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최단 거리의 성분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최대투사통어(m-command) 관계에 있는 성분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수형도 (28)과 같이 목표역이 IA의 지정어로 이동하게 되면, 목표역은 대상역을 최대투사통어하지만 대상역은 목표역을 최대투사통어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상역의 작용역은 목표역의 작용역을 넘지 못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양화사 작용역 동결이라고 한다. (30a)는 이러한 동결 현상으로 인해 단일 해석만 가능하다. (30b)와 관련하여 Bruening(2001)은 대상역과 전치사구가 동일한 차상위 최대투사 VP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대상역과 목표역이 서로 최대투사통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에서 두 논항의 양화사 작용역은 등거리에 존재하므로, 두 작용역은 동일한 최대투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30b)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목표역의 작용역이 대상역의 작용역을 넘으면 사탕의 수와 아이의 수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목표역의 작용역이 대상역의 작용역을 넘지 않으면 사탕의 수와 아이의 수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wh*-이동과 양화사 작용역을 논의하는 과정은 삼중 핵 구조가 타당하다는 것을 검증해준다. V에 부과된 구조적 부담은 핵 분리를 통해 V와 IA로 분산하였고, 이로 인해 핵과 논항의 대칭적 실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삼중 핵 설정은 Bruening(2010a), Marantz(1993), Pytkänen(2008)의 분석에서 제안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uening(2010a), Marantz(1993)는 HAppl를 추가 핵으로 설정하고, Pytkänen(2008)는 LAppl를 추가 핵으로 설정한다. HApplP 구조는 사건과 개체의 관계를 보여주고, LApplP 구조는 두 내부논항의 소유관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보여주어야 하였고, 특히 목표역과 IA가 병합하는 통사 과정이 상적 의미에 공헌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삼중 핵 구조에서 직면하는 핵 이동에 대해 다루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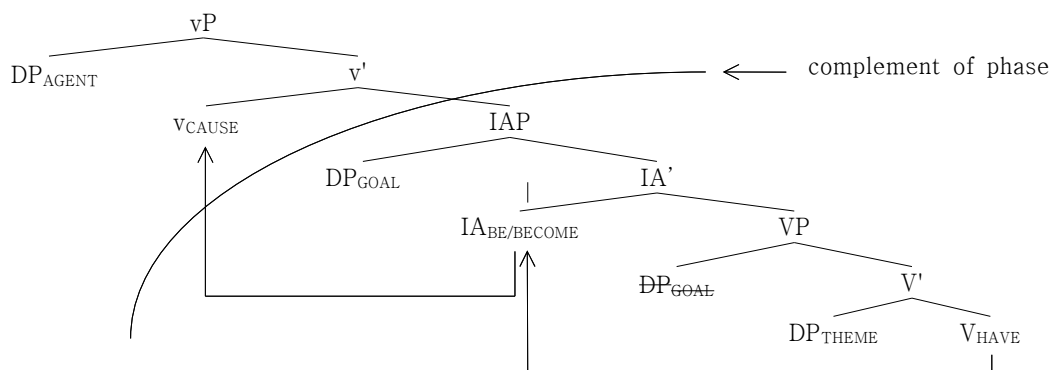
<sup>13</sup> 본 연구는 중의적 해석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30)에서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을 함께 제시한다. 양화사 작용역의 차이는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의 비도출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많은 문헌에서 논의되어왔다. Bruening(2001)은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의 기저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의미적 차이도 존재한다는 분석을 지지하며,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 3.2 핵 이동

핵 이동은 통사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개념 중 하나이고,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직면하는 핵 이동은 동사 이동(verb movement)이다. 이러한 이동에 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사 이동을 통사부(syntax) 이동으로 보는 분석이고(김대익 2011, Bobaljik and Brown 1997, Bury 2003, Fanselow 2004, Iorio 2015, Nunes 2001, 2004, Uriagereka 2000), 다른 하나는 음운부(Phonological Form, PF) 이동으로 보는 분석이다(Boeckx and Stjepanović 2001, Goldberg 2005, Harley 2002, Schoorlemmer and Temmerman 2012). 동사 이동을 통사적 이동으로 보는 분석은 확장조건(Extension Condition)을 위반하거나(김대익 2010, 2011), 연쇄 일률성 조건(Chain Uniformity Condition) 또는 A-over-A 조건(A-over-A Principle)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통사부 규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Dékány 2018). 게다가 구문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적 문제도 있다(Chomsky 2000, 2001). 이러한 사실들은 동사 이동이 후통사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사 이동을 음운부 이동으로 보는 분석은 이동이 통사부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통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통사부에서 발생하는 이동이 음운부에서 발생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Matushansky 2006). 이와 관련하여 김대익(2011)은 음운론적 분석들이 주로 동사 이동과 논항 이동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차이에 대해 통사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통사론적 분석과 음운론적 분석이 오랫동안 대립해온 사실은 동사 이동이 단일 운용(single operation)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사 이동과 관련하여, 동사 *give*는 CAUSE의 의미를 나타내는 *v*와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어근  $\sqrt{GIVE}$ 로 구성된다. CAUSE와  $\sqrt{GIVE}$ 가 동사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V가 *v*로 이동해야 한다. 삼중 핵 구조에서 이러한 이동은 장거리 이동에 해당하므로, 국부성 원리(Locality Principle)와 핵 이동 제약(Head Movement Constraint)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이동을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핵은 자신과 인접한 최대투사범주의 핵으로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사가 단거리 이동을 반복하려면, 수형도 (31)과 같이 중간 투사 핵을 거쳐서 이동해야 한다.

(31)



동사는 V에서 IA로 먼저 이동하고, 이어서 *v*로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이동은 온전히 통사적 이

동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국면과 관련이 있다. Chomsky(2001)의 국면불가침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에 따르면, 국면(phase) 형성 이후에 추가적 통사 과정은 국면 영역으로 침투할 수 없다. 연산을 통해 얻어지는 도출이 국면 단위로 음운부와 의미부로 전이되기(transferred)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vP 국면이 형성되면 국면 핵 v와 그 지정어는 새로운 차상위 국면에 나타나야 하고, 새로운 국면은 v의 보충어 IAP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V가 중간착지점 IA까지 이동하는 것은 통사적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중간착지점부터 v까지 이동하는 것은 통사적 이동으로 볼 수 없다.

국면 이후에 v와 V가 서로 다른 도출 단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사부와 후통사부가 동사 이동에 관여한다는 단서가 된다. 국면은 명제(proposition)적 성격을 띠고, 통사적 단위 CP와 vP로 설정된다(Chomsky 2000, 2001, 2005). Shim(2022)의 분석에 의하면, 국면 이후에 전이된 요소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도출 과정에 남고, 남겨진 요소는 국면 형성 직전 또는 국면 형성 직후에 이동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사 이동이 복합 운용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국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통사부와 후통사부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존재한다면, 복합적 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배분형태론은 통사부와 음운부 사이에 형태부 영역을 추가로 제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면 초기에는 통사부에서 생성하는 위계적 배열이 남아있다.<sup>14</sup> 이러한 통사적 위계는 일부 형태학적 과정(morphological process)에 의해 바뀔 수 있고, 이후에는 어휘 삽입(vocabulary insertion)과 선형화(linearization)가 발생한다. 선형화 이후의 표상(representation)에는 음운적 정보만 나타나고, 통사적 위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Dékány(2018)는 음운론적 분석에서 동사 이동이 어휘 삽입과 선형화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는 주장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동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동사 이동은 문자화 이후에 발생하지만, 그 시점이 어휘 삽입과 선형화 이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면이 형성된 직후 통사적 위계가 남은 형태부에서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서로 다른 도출 단계에서 같은 유형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유형의 이동을 허용해주는 장치가 있고, 그 장치를 통해 이동이 호환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동을 허용하는 장치는 형태부 영역이고, 이 영역을 통해 통사적 이동과 후통사적 이동이 유사하게 발생할 것이다. 배분형태론에서 후통사적 이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음운부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동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Chomsky(2001)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제안한 음운론적 분석의 예로는 주제화(thematization)와 외치(extraposition)가 있다.<sup>15</sup> 이러한 이동들은 통사적 위계가 여전히 남은 PF 접합부의 한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 영역에서 동사가 이동한다면, 동사 핵은 연쇄(chain)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통사론적 분석과 관련하여 Dékány(2018)는 동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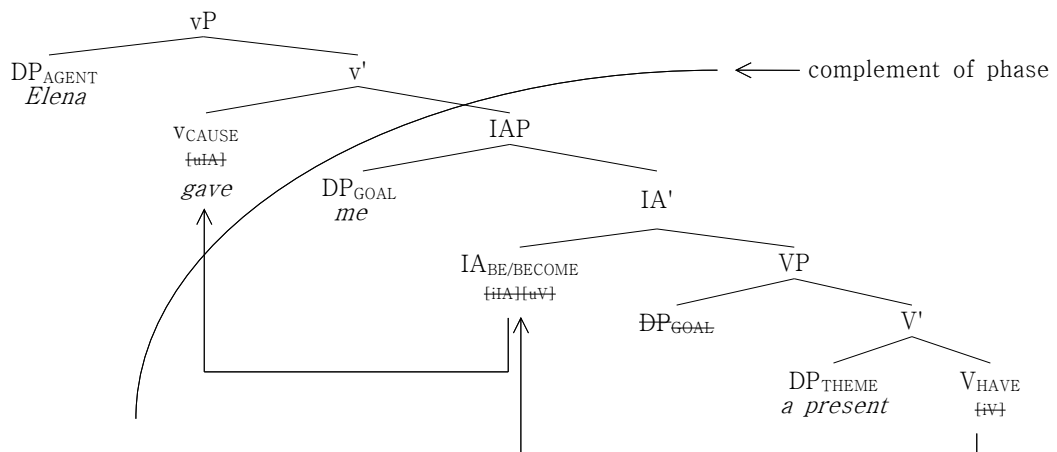
<sup>14</sup> 최소주의에서 통사적 도출이 문자화(Spell-Out)지점에 도달하면, 통사 구조는 LF 접합부(LF interface)로 전달되고 통사 정보는 PF 접합부(PF interface)로 전달된다. 배분형태론(Halle and Marantz 1994)은 문자화 지점에서 PF 접합부의 사상에 관한 이론으로 어형성(word formation)이 여러 층위로 분산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이 이론에서는 D-구조(D-Structure, DS), S-구조(S-Structure, SS), 논리구조(Logical Form, LF), 음운 형태(Phonological Form, PF) 외에 형태 구조(Morphological Structure, MS)라는 새로운 층위를 추가한다.

<sup>15</sup> 주제화는 내부논항이 음운부에서 vP의 지정어로 좌향 이동한 것이고, 외치는 내부논항이 음운부에서 vP의 부가어 위치로 우향 이동한 것이다. 두 이동은 음운부의 규칙이다. 통사부 도출 과정 중 vP의 순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해당 단계까지 구축된 vP를 음운부로 보내고 음운부에서 주제화와 외치 규칙이 적용된다.

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나의 핵이 상위 핵으로 이동하게 되면, 핵이 더 이상 혼자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v-to-C 이동에서 v는 T로 이동할 수 있지만, v-to-T 이동 이후에 C로 이동하는 것은 v가 아니라 v와 C의 복합핵이다. 이런 복합핵의 이동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쇄도 형성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음운론적 분석과 통사론적 분석이 유사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 이동이 복합 운용으로 발생한다고 제안한다. 이 운용은 통사적 이동과 후통사적 이동이 연속적-순환적(successive-cyclic)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이동이 통사부와 후통사부에서 각각 한 번씩 발생한다면, 이동 과정에서 흔적이 남거나 연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통사적 이동과 관련하여, 최소주의 이론에서 이동은 자질 점검을 통해 한 자질이 다른 자질을 유인하는 현상이다. 수형도의 종단 절점(terminal node)은 통사적 자질들이 병합되는 위치이고, 이동은 강자질(strong feature)의 점검으로 나타난다. 강자질은 비해석성 자질로 이동을 유발하고, 음운부에서 가시적이므로 점검 후 문자화 이전에 삭제되어야 한다. 동사의 자질 점검은 핵과 핵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수형도(32)를 통해 살펴보자.

(32)



핵 IA와 V는 [V]자질을 내포하고, 일치 관계에 들어간다. IA가 [uV]자질을 내포하므로, 동사는 V에서 중간착지점 IA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V-to-IA 이동은 통사부에서 발생하는 이동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후통사적 이동과 관련하여, 동사는 중간착지점에서 다시 이동한다. 핵 v와 IA는 [IA]자질을 내포하고, 일치 관계에 들어간다. v가 [uIA]자질을 내포하므로, 동사는 중간착지점 IA에서 v로 이동한다. IAP가 v와 병합하는 과정에서 vP 국면이 형성되는데, 그 결과 국면 핵 v와 그 지정어는 통사부에 남고, v의 보충어 IAP만 음운부로 전이된다. 그러나 전이되는 요소는 도출 과정에 남으므로, 국면이 형성된 직후 통사부와 음운부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부에서 이동할 수 있다. 형태부는 후통사부의 일부 영역이지만, 국면 초기에는 통사부에서 생성하는 계층적 위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IA-to-v 이동은 후통사적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 핵 구조에서 직면하는 핵 이동 문제와 관련하여, 동사 이동이 복합 운용 과

정에 의해 연속적-순환적으로 발생한다고 논의하였다. 동사가 V에서 v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동이 있고, 이 이동들은 서로 다른 도출 단계에서 발생한다. 동사는 V에서 중간착지점 IA로 먼저 이동하고, 이어서 IA에서 v로 이동한다. V-to-IA 이동은 국면 이전에 통사부에서 발생하지만, IA-to-v 이동은 국면 이후에 후통사부에서 발생한다. 국면 직후에 전이되는 요소는 도출 과정에 남고, 형태부에는 통사적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이중목적어 구문에 관하여 삼중 핵 구조로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주류가 되는 이중 핵 구조는 핵이 논항을 비균등적으로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고, 사중 핵 구조는 비경제적으로 도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에 비해 삼중 핵 구조는 구조적 측면에서 핵과 논항의 균등성을 유지하게 하였고, 도출적 측면에서 하나의 핵만 설정하므로 경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 핵 설정과 함께 논항 이동과 동사 이동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보완하고자 하였다. 삼중 핵 설정은 특정 핵에 가중된 구조적 부담을 분산시켰고, 이에 수반되는 이동은 핵과 논항을 대칭적으로 병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추가 핵과 논항이 병합하는 방식은 해당 논항이 상에 더 많이 관여하는 현상을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은 병합방식이 의미에 공헌하는 것은 통사구조와 의미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삼중 핵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의 분리를 시도하였고, 핵 분리를 통해 설정된 추가 핵 IA는 목표역과 병합한다고 가정하였다. 목표역의 실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내부상 영역을 수정하였고 내부상 속성을 추가하였다. 내부상 영역을 확장하여 특정 요소만 이동을 통해 종결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일관적인 방식으로 종결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상적 요소들이 상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부상 연산 과정이 종결성과 결과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각각의 내부상 요소가 가지는 속성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상 속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상 요소들의 상적 기여도순을 부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삼중 핵 설정을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동사의 분포를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였다. 동사와 불변화사의 밀접하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통해 복합동사 구조를 유추하였다. 구동사의 분포는 동사의 이동 운용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와 더불어 구동사의 유형에 따라 불변화사의 표면적 위치가 다른 것은 동사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병합방식 때문임을 밝혔고, 이러한 차이는 어순대응공리를 반증하는 예로 제시하였다. 이중목적어 구문에 관한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통사적 현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삼중 핵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만, 이 구조에서 직면하는 동사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 운용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 동사는 국면이 형성되기 전에는 통사부에서 이동할 수 있고, 국면이 형성된 직후에도 후통사부의 일부 영역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동사 이동을 이분법적 방식으로 논의해 온 선행연구들에 대해 절충적 대안이 된다.

## 참고 문헌

- 김대익(Kim, D). 2010. 국면과 문자화와 동사이동(Phase, spell-out and verb movement). 《현대문법연구》(*Studies in Modern Grammar*) 60, 1-20.
- 김대익(Kim, D). 2011. 동사이동과 최소주의(V-movement and Minimalism).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8-4, 1-20.
- 신흥택(Shin, H.). 2016. 영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지향형의 구조, 의미와 의미역 자질(Structure, meaning, and theta features of applicative structure in English double object construction).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3-2, 61-83.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ker, M. 1997. Thematic roles and syntactic structure.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73-137. Dordrecht: Springer.
- Barss, A. and H. Lasnik. 1986. A note on anaphora and double objects. *Linguistic Inquiry* 17, 347-354.
- Beck, S. and K. Johnson. 2004. Double objects again. *Linguistic Inquiry* 35(1), 97-123.
- Bobaljik, J. 1995. *Morphosyntax: The Syntax of Verbal Inflection*.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USA.
- Bobaljik, J. and S. Brown. 1997. Interarboreal operations: Head movement and the extension requirement. *Linguistic Inquiry* 28(2), 345-356.
- Boeckx, C. 2008. *Bare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eckx, C. and S. Stjepanovic. 2001. Head-ing toward PF. *Linguistic Inquiry* 32(2), 345-355.
- Bruening, B. 2010a. Double object constructions disguised as prepositional datives. *Linguistic Inquiry* 41(2), 287-305.
- Bruening, B. 2010b. Ditransitive asymmetries and a theory of idiom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1(4), 519-562.
- Bury, D. 2003. *Phrase Structure and Derived Head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 Chang, K. 2016. On the syntactic alternation of English transitive phrasal verbs. *Studies in Modern Grammar* 88, 1-18.
- Chang, K. 2018. English phrasal verbs are not primitives. *Studies in Modern Grammar* 100, 41-63.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 MIT Press.
- Dékány, É. 2018. Approaches to head movement: A critical assessment.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1–43.
- Den Dikken, M. 1995. *Particles: On the Syntax of Verb–particle, Triadic, and Causative Construc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delstein, E. 2020. *English Syntax: A Minimalist Account of Structure and Variation*. England: Edinburgh University Press.
- Fanselow, G. 2004. Münchhausen–style head movement and the analysis of verb second. *Linguistics in Potsdam* 22, 9–49.
-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Goldberg, L. 2005. *Verb–stranding VP Ellipsis: A Cross–linguistic Study*.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QC, CA.
- Green, G. 1973. *Semantics and Syntactic Regularity*.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Hale, K. and S. Keyser. 1993. A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S. Bromberger, ed., *The View from Building 20*, 53–109. Cambridge, MA: MIT Press.
- Hale, K. and S. Keyser. 2002. *Prolegomenon to a Theory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Halle, M. and A. Marantz. 1994. Some key features of distributed morpholog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1, 275–288.
- Harley, H. 1995. *Subjects, Events, and Licensing*.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USA.
- Harley, H. 2002. Possession and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1), 31–70.
- Harley, H. and H. Jung. 2015. In support of the PHAVE analysis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46(4), 703–730.
- Harley, H. and S. Miyagawa. 2017. Syntax of ditransitives.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1–25.
- Huddleston, R., G. Pullum and B. Reynolds. 2021. *A Student’s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orio, D. 2015. *Subject and Object Marking in Bembe*. Doctoral dissertation, Newcastle University, Newcastle, UK.
- Jackendoff, R. 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2), 305–354.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Kratzer, A. 1996. Severing the external argument from its verb. In J. Rooryck and L. Zaring,



- eds., *Phrase Structure and the Lexicon*, 109–137.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rifka, M. 1989. Nominal reference, temporal constitution and quantification in event semantics. In R. Bartsch and J. van Benthem, eds., *Semantics and Contextual Expression*, 75–115.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Krifka, M. 2004. Semantic and pragmatic conditions for the dative altern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1), 1–31.
- Larsen, D. 2014. *Particles and Particle–verb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Other Germanic Languag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DE, USA.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 335–391.
- Larson, R. 1990. Double objects revisited: Reply to Jackendoff. *Linguistic Inquiry* 21(4), 589–632.
- Levin, B. and M.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 MIT Press.
- Lohndal, T. 2011. Freezing effects and objects. *Journal of Linguistics* 47(1), 163–199.
- MacDonald, J. 2008. *The Syntactic Nature of Inner Aspect: A Minimalist Perspective*. Amsterdam, NL: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acDonald, J. 2015. A movement analysis of som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Proceedings of the 32nd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276–285.
- Marantz, A. 1993. Implications of asymmetries in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S. Mchombo, ed., *Theoretical Aspects of Bantu Grammar*, 113–150. Stanford: CSLI Publications.
- Matushansky, O. 2006. Head movement in linguistic theory. *Linguistic Inquiry* 37(1), 69–109.
- McIntyre, A. 2013. English particle verbs as complex heads: Evidence from nominalization. In H. Härtl, ed., *Interfaces of Morphology*, 41–57. Berlin: Akademie Verlag.
- Mezhevich, I. 2003. English resultatives: State versus location. In *Proceedings of the 2003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166–177.
- Nunes, J. 2001. Sidewar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2(2), 303–344.
- Nunes, J. 2004. *Linearization of Chains and Sideward Movement*. Cambridge, MA: MIT Press.
- Oehrle, R. T. 1976. *The Grammatical Status of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USA.
- Ormazabal, J. and J. Romero. 2010. The derivation of dative alternations. In M. Duguine, S. Huidobro and N. Madariaga, eds.,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Relation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203–23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Ormazabal, J. and J. Romero. 2012. PPs without disguises: Reply to Bruening. *Linguistic*

*Inquiry* 43(3), 455–474.

- Pesetsky, D. 1995. *Zero Syntax: Experiencers and Cascades*. Cambridge, MA: MIT Press.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Pinker, S. 2007. *The Stuff of Thought: Language as a Window into Human Nature*. London, UK: Panguin Books.
- Pylkkänen, L. 2008. *Introducing Arguments*. Cambridge, MA: MIT Press.
- Radford, A. 1997. *Syntax: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2009. *Analysing English Sentences: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chand, G. 2008. *Verb Meaning and the Lexic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Schoorlemmer, E. and T. Temmerman. 2012. Head movement as a PF-phenomenon: Evidence from identity under ellipsis. In *Proceedings of the 29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232–240.
- Shim, J. 2022. Transfer and dynamic acces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101, 23–40.
- Smith, C.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nyder, W. 2001. On the nature of syntactic variation: Evidence from complex predicates and complex word-formation. *Language* 324–342.
- Travis, L. 2010. *Inner Aspect*. Dordrecht: Springer.
- Ura, H. 2000. *Checking Theory and Grammatical Functions in Universal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riagereka, J. 2000. *Rhyme and Reason: An Introduction to Minimalist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1972. *On the Compositional Nature of the Aspects*.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All